

# 인천교육예산 학력향상 집중 투자

### 올해 인천교육예산 2조 2649억원...실질 가용재원은 줄어

올해 인천시 교육예산 중 상당액이 학력신장을 위한 사업에 투자될 전망이다.

인천시교육청은 올 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이 2조 2,649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11%가 증가한 규모로 나타났다. 중앙정부 이전 수입이 전년대비 12%인 1,761억원이 감소함에 따라 국가 부담 학교신설비 1,847억원을 지방채로 충당하여야 하는 등 실질 가용재원은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전체예산 중 필수경비인 인건비, 학교운영비, 기관운영비, 시설비, 예비비 등에 투자되는 재원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은 약 3,166억원에 불과하다.

인천시교육청은 2010년도를 '학력'을 인건비를 구원하는 원년의 해로 정하고 직접교육비에 투자하여, 학생들의 학력향상을 위한 예산을 전년도 956억원에서 49%(409억원) 증액된 1,425억원을 반영하였고, 지난해 전국 최고였던 학교운영비 예산(전체예산 대비 학교운영비 비율: 전국 평균 7.2%, 인천 9.2% 전국 최고)을 금년 본예산에도 5%가 증액된 1,802억원을 편성하여 학생들의 학력향상에 역점을 두었다.

세출예산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교원심화연수, 교과연구회, 자율장학 등 교직원 전문성 제고' 102억원, '사이버가정학습, 학업성취도평가, 학력인전 프로젝트 추진 등 기초학력 향상' 102억원, '영어체험학습, 체험캠프, 원어민교사 운영 등 글로벌 에듀프로그램 운영' 222억원, '발명교육, 체험중심 과학활동, 영재교육 등 과학·영재교육' 148억원, '수준별 교육과정운영, 교과교실제 운영 등 학생의 진로·적성에 맞는 교육과정운영' 155억원, '방과후 학교 운영, 방과후 보육프로그램, 방과후 자유수강권제 등 재능·적성교육' 115억원 등 총 844억원을 학생 학력 향상에 중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했다.

또한, '유아교육지원, 중식지원, 학비지원 등 저소득층 자녀 교육복지' 786억원, '특수교육 여건개선, 통합교육 기반 구축, 특수학급 설치 등 특수교육의 질적 수준 제고' 147억원, '농어촌 교육여건개선,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 지원 등 교육격차 해소' 59억원, '학교급식시설개선 및 설비 확충 94억원' 등 총 1,086억원을 특수교육 및 학생복지 예산으로 편성했다.

아울러 '도시개발에 따른 2010~2013년 학교신설 추진 23교(초 12교, 중 7교, 고 4교) 등 학생수용 시설 확충' 1,943억원, '전문승계 등' 347억원, '화장실 개선,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등 학교 일반시설 개선' 107억원, '구도심 조성의 친녹색 성장을 위한 친환경 조성사업, 노후 책걸상 교체' 85억원 등 총 2,482억원을 학교 교육 여건개선비로 편성했다.

김창수 교육지원과장은 "금년도는 가용재원이 전년도보다 감소하여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세계속의 Edu-Hub 인천교육을 실현 한다'는 목표 아래, 선택과 집중을 통한 예산을 편성했다"라고 하며, "어려운 경제 여건을 극복하기 위해 ZERO-BASE(영 수준관점)에서 사업을 전면 재평가했고, 3급 이상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전년도 95% 수준, 사업업무추진비는 90% 수준으로 감소시켰으며, 자산취득비와 시설비는 필수경비만 편성하고 업무용 승용차와 사무용 컴퓨터는 2년 더 사용하기로 하는 등 경감경비를 최대한 억제하여 직접교육비로 투자되도록 전 교직원의 동참을 유도했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이렇게 집결된 교육재정이 학교운영비와 학력향상사

업에 보다 많이 투입됨으로서 단위학교의 자율성 신장과 교육력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 된다"고 했다.

홍성민 기자 hsi@eduyonhap.com

### 차세대 에너지를 찾아서

인천광역시교육청은 지난 13~15일 3일간 초,중,고 교원 250명을 대상으로 '원자력 이해 직무연수'를 실시했다.

참가한 교원들은 '미래 성장 동력 원자력'과 '국내의 에너지 현황과 전망' 및 '방사선과 함께 하는 우리 생활'이라는 주제로 평생 학습관에서 특별 강연을 경청하고, 고리원자력 발전소와 월성원자력 발전소를 방문해 중앙제어실 체험과 함께 운영 상황과 지역 지원사업 현황 등을 들었다.

한 교사는 "다양한 원자력 발전에 관한 체험 연수를 통하여 청정 에너지 원자력에 대하여 이해를 높였으며, 아랍에미리트 원자력 발전소 건설 수준의 저력을 직접 실감했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에 대해 참가 교원들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과 중요성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 해외영어체험캠프에 선발된 학생들.

## “교과서 수업받고 ‘영어캠프’ 가요”

### 서울중부교육청, 차별화된 영어캠프 운영

수백만원을 넘는다는 '명품' 사교육을 받지 않고 '영어 교과서'만 외워 해외 영어체험 캠프의 기회를 얻은 학생들이 있다.

서울 중부교육청(교육장 김점옥)은 지난 1월 7일부터 오는 21일까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소재 첼파카 국제학교에서 '해외 영어체험 캠프'를 열고 있다. 지난 4일 참가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사전연수를 시작으로 열리고 있는 이번 캠프는 관내 초등학교 12명과 중학교 8명 등 모두 20명(사회적배려 대상자 4명 포함)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특히 이번 행사는 학생선발 방식에 있어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줘 눈길을 모으고 있다.

교육청은 관내 학교별 '영어교과서' 암송대회를 열어 대회 우수자와 우수한 성적을 거둔 사회적 배려 대상 학생 중에서 공개추첨을 통해 참가자를 선발했다.

사교육에 대한 수요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 영어 공교육의 경쟁력을 되살릴 수 있는 대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평일 영어저점센터를 이용한 정규수업의 실시, 찾아가는 영어도서관, 전문 영어교재 개발 등 영어 공교육 회선에 앞장선 중부교육청의 한 발 앞선 인식을 다시 한 번 읽을 수 있다.

한편 이번 행사는 교육청의 특색사업인 '1재단 1학교(사업)' 공익재단 연계사업의 하나로 재단법인 수림재단(이사장 김희수)이 후원하고 있다.

양원석 기자 yws@eduyonhap.com

## 송도랜드마크시티 교육 신도시로

### 인천시교육청, 6·8공구내 학교용지 교육환경평가 완료

인천시교육청은 지난 11일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송도랜드마크시티-6·8공구) 개발구역 내 11개 학교의 배치를 위한 '학교용지 교육환경평가 심의'를 학교보건위원회에서 최종 완료했다.

이번 최종 완료된 학교용지(면적 154,262㎡)의 교육환경평가는 인천시교육청과 인천경제자유구역역량이 2008년부터 1년 3개월 동안 협의와 평가서 보완 등을 통해 신중을 기해 결정했으며, 학생들에게 부정적이거나 유해가능성이 있는 환경을 사전에 배제하거나

최소화 하도록 했다. 이번 평가에서는 그 동안 협의 과정에서 문제가 되었던 학교부지 형태의 직사각형화, 일조권 향상을 위한 연결녹지 및 공원 조성, 골프장 인근학교의 위치변경, 학교 주변 업무지구의 공동주택 변경, 학교인근 상업용지의 200m 이격, 인천대교 연결도로 인근학교의 위치변경 등 각종사항들을 모두 개선·반영했다.

또한, 학교용지 출입부 제한 최소화, 학교 운영 시 소음도 자료 제출 및 저소음포장, 친환경방음벽 설치, 정화구역 내 주차복합용

지의 금지시설 용도불허, 하수처리시설의 주 시설물 200m 이격 및 약취정보 전자계시판 설치, 하수처리시설 내 수처리 시설 견학데크, 수생식물조성, 생태연못, 야생화 군락 등 환경교육시설 조성 과 골프장 농약사용량 및 잔류 농약량의 필요시 공개 등의 추가 조건도 평가결과에 명시했다.

관진수 교육감권한대행은 "택지개발이나 재개발 등 각종 개발 수요가 많은 인천지역의 여건을 볼 때 이번 송도랜드마크시티-6·8공구 학교용지 교육환경평가는 학생들에게 최적의 교육여건을 제공하는 좋은 모델로 제시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김내림 기자 kny@eduyonhap.com



과학수업에 빠진 교사들

지난 1월 11일부터 22일까지 교육과학연구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중등과학실험연수에 참가한 80여명의 교사들이 추위도 잊은 채 '구리의 산화·환원 반응 키트제작 및 활용'에 관한 실험연수에 빠져있다.

### 인천안남중, 방과후 학교 개설

인천안남중학교(교장 오혜성)는 작년 12월 31일부터 올해 1월 16일까지 전교생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겨울방학 방과후 학교를 실시했다.

이번 겨울방학 기간(28일)이 짧기 때문에 35차시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 방학 기간동안 정규 교육과정의 내용을 보충, 심화하는 기회를 갖고 보충, 선수학습을 통해 새 학년의 학업 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학교측은 열게 되었다고 밝혔다. 방과후 학교는 국어, 영어, 수학은 필수로, 사회와 과

학은 선택 과목으로 구성하였으며 학생들의 요구사항을 고려해 과목당 시간 배정을 달리하여 운영했다. 학생들은 "혼자 하기 어려웠던 부분을 선생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때문에 학습에 도움이 된다"는 반응이다. 연말 계속되는 영하의 날씨로 아침 일찍 등교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겨울방학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부족한 과목을 보충하여 학습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을 갖고 의욕적으로 새 학년을 맞이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 인천고잔유치원 준공

인천광역시동부교육청은 시설사업계획에 따라 15일 남동구 논현동에 공립단설유치원 '고잔유치원'을 준공했다.

고잔유치원은 연면적 1696.8㎡, 3층 단독 건물로 엘리베이터, 다목적 강당, 화장실, 식당 등이 있으며, 유아의 정서, 신체, 활동 특성을 고려하여 안전하고 밝은 색의 시설들로 구성했다.

또, 주차장을 확보해 유치원 등 학교 시 보호자의 편의를 도모했으며, 텃밭시설이 있어 원생들의 자연체험 학습도 가능하도록 했다. 홍성민 기자 hsi@eduyonhap.com

아직도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러 나가세요!

—한국형 음식물 처리기 국내 최초 개발  
—국내 유일 100% 국산 제품  
—음식물 쓰레기 싱크대에서 즉시처리

가족건강 이제 대신 케어로 Care하자

Model : KS-8000

Q&A 알려주세요!

Q1. 대안-케어스런 무엇인가요?  
A.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 KS-8000은 음식물 쓰레기를 싱크대에 투입하면 자동으로 분쇄, 건조, 탈수, 건조, 분쇄 과정을 거쳐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합니다.

Q2. 처리후 남은 음식물 쓰레기는 어떻게 하나요?  
A. KS-8000은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한 후 남은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수거합니다.

Q3. 전기요금은 얼마나 나오나요?  
A. KS-8000은 100W의 전력만을 사용합니다.

Q4. 설치 무료인가요?  
A. KS-8000은 전국 어디서든 설치 가능합니다.

분해전용 EM 합성제

태산-케어스 Series  
▶한국형 음식물 처리기 KS-8000 / KS-6000  
▶세제, 방제, 탈수, 유해 2인용 2차처리 배설물처리기 하천 2인용

태산 태산바이오

인천광역시 북구 구수동 97-4번지 신영빌딩 402호  
소재지상업: 1644-4415 팩스: (032)832-0304

지사대리점모집